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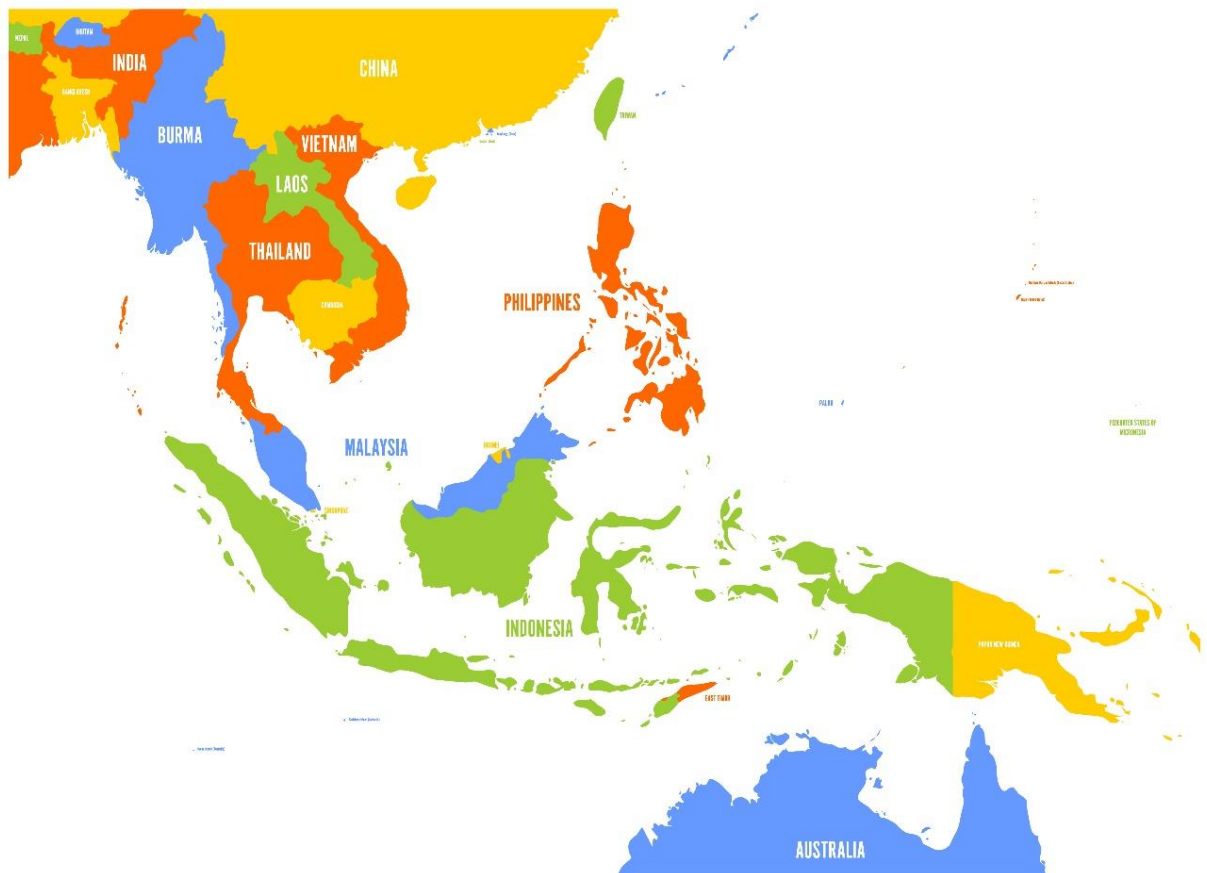
1. 태국어의 특징과 인사말

1강에서는...

- 1) 태국과 태국어의 특징을 알아봅시다.
- 2) 태국어의 문장구조를 알아봅시다.
- 3) 태국어의 인사말을 공부하고, 태국어로 인사해 봅시다.

<태국의 문화> 태국식 인사법 ไหว้ (와이)

1) 태국과 태국어



[EBS 초급 태국어]

1.1 태국은 어떤 나라인가?

- ① 지리적 이점: 태국은 인도차이나 반도 중심부에 있으며, 대륙부와 해양부 동남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.
- ② 경제적 이점: 대륙부 동남아시아에서는 경제적으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.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캄보디아, 미얀마, 라오스 등 주변 저개발 국가에 대한 원조활동도 진행하고 있다.
- ③ 문화적 공통성: 동남아시아 11개국 중, 베트남을 제외한 대륙부 동남아시아(태국, 캄보디아, 미얀마, 라오스)는 불교 문화권이라는 문화적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.
- ④ 문화적 자부심: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서구 열강의 식민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로서의 문화적 자부심이 있으며, 여기에 독창성 있는 태국어에 대한 자부심도 포함된다.

1.2 태국어의 특징

- ① 태국어는 1283년, 태국의 첫번째 통일왕조인 '수코타이 왕조'의 3대왕인 '람캄행 대왕'이 고안한 글자이다.

- ② 단수, 복수 등 수에 의한 단어의 어형 변화가 없다.

: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복수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.

เพื่อน (프-안: 친구) → เพื่อน ๆ (프안 프-안: 친구들)

เด็ก (덱: 어린이, 아이) → เด็ก ๆ (덱 덱: 어린이들, 아이들)

- ② 시제에 따른 단어의 어형 변화가 없다.

: 시제를 나타내는 조동사를 앞이나 뒤에 덧붙여서 시제를 나타낸다.

[EBS 초급 태국어]

กิน (กิน: 먹다)

จะกิน - กำลังกินอยู่ - ได้กินแล้ว

(จะ กิน: 먹을 것이다) (กำลัง กิน อยู่: 먹고 있는 중이다) (ได้ กิน แล้ว: 먹었다)

③ 성에 따른 변화가 없다.

: 다만 인칭 대명사에서 일부 성에 따라 단어가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다. 그러나 변화를 줄 필요는 없다.

(예) 1인칭 - 남성 = ผม(품)

여성은 ดีฉัน(디찬)

: 공손하거나 격식 있는 표현을 만들기 위한 '~예요, ~입니다'를 나타내는 어미(어조사)의 경우에도 남녀 구분이 있다.

(예) '~예요, ~입니다' - 남성 = ครับ(크랍: 대답하거나 물어볼 때)

여성 =ค่ะ(카: 대답할 때)

ค่ะ(카: 물어볼 때)

④ 격에 따른 변화가 없다.

: 주격, 소유격, 목적격 등 격에 따른 변화가 없다.

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그에 맞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 된다.

예를 들어, 1인칭이라면, 남성은 ผม(품: 남성의 '나') 여성은 ดีฉัน(디찬: 여성의 '나')만 사용하면 된다.

주격(나): 남성- ผม(품) / 여성- ดีฉัน(디찬)

목적격(나를): 남성- ผม(품) / 여성- ดีฉัน(디찬)

소유격(나의): 남성- ของผม(커-ㅇ 품) / 여성- ของดีฉัน(커-ㅇ 디찬)

[EBS 초급 태국어]

⑤ 5개의 성조를 가진 언어이다.

: 각각의 성조의 이름과 발음을 표기한다.

평성	1성	2성	3성	4성
- 마-	\ 마-	^ 마-	/ 마-	v 마-

2. 태국어의 문장 구조: 주어부 [주어] + 술어부[동사 + 목적어]

- 한국어는 '주어-목적어-동사'로 이루어져 있다.

또한 조사가 있기 때문에 각 성분의 위치가 바뀌어도, 어감은 바뀌지만 그 뜻이 바뀌지 않는다.

나는 당신을 사랑해요.
(주어) (목적어) (동사)

- 나는 사랑해요, 당신을.
- 당신을 사랑해요, 나는.
- 사랑해요, 당신을 나는...

반면, 태국어는 목적어와 동사의 위치가 한국어와 반대이다.

또한 조사나 어형변화가 없기 때문에, 각 단어의 위치에 따라 그 역할이 정해진다.

따라서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.

그러므로 태국어는 문장 성분의 위치를 바꾸면, 전혀 다른 뜻이 되거나 상황에 따라 쓸 수 없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.

ฉัน รัก คุณ
(찬) (락) (쿤)
나 사랑한다 당신: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.

[EBS 초급 태국어]

คุณ

(kun)

당신

รัก

(rak)

사랑한다

ฉัน

(chan)

나: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.

위의 문장은 '주어'와 '목적어'의 위치를 바꾸었을 뿐인데,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 버린다.

ดิฉัน

(dichan)

나(여성)

กิน

(kin)

먹다

ข้าว

(ka-u)

밥: 나는 밥을 먹는다.

ข้าว

(ka-u)

밥

กิน

(kin)

먹다

ดิฉัน

(dichan)

나(여성): 밥이 나를 먹는다. (X)

위의 문장은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쓸 수 없는 문장이 되어버렸다.

다시 말해 태국어는 단어를 한번 외우면 변화를 줄 필요가 없다. 대신 문장 내의 위치에 따라 그 단어의 역할이 정해지기 때문에 주어부 [주어] + 술어부[동사 + 목적어] 라는 문장 구조를 꼭 알고 있어야 한다.

3. 태국어의 인사말

① 첫 만남

- '싸왓디-' 라는 인사는 처음 만났을 때뿐 아니라, 헤어질 때 모두 사용할 수 있다.

สวัสดีครับ

(싸왓디- 크랍): 안녕하세요.

สวัสดีค่ะ

(싸왓디- 카): 안녕하세요.

สวัสดีค่ะ

(싸왓디- 카): 안녕하세요.

สวัสดีครับ

(싸왓디- 크랍): 안녕하세요.

สวัสดี	(싸왓디-)	만나거나 헤어질 때 인사말
ครับ	(크랍)	[남성] 종결형 어미 (의문, 평서문) ~입니다, ~이에요, ~입니까?
ค่ะ	(카)	[여성] 종결형 어미 (평서문) ~입니다, ~이에요

[EBS 초급 태국어]

② 감사의 인사

ขอบคุณครับ

(커-ᄃᆞᆫ 크랍): 감사합니다.

(ด้วยความ)ยินดีค่ะ

((두-아이 콰-ᄃᆞᆫ) ᄃᆞᆫ- 카): 천만예요.

ขอบคุณค่ะ

(커-ᄃᆞᆫ 카): 감사합니다.

(ด้วยความ)ยินดีครับ

((두-아이 콰-ᄃᆞᆫ) ᄃᆞᆫ- 크랍): 천만예요.

ขอบคุณ	(커-ᄃᆞᆫ)	감사하다, 고맙다	ความ	(콰-ᄃᆞᆫ)	명사형을 만드는 접두사
ด้วย	(두-아이)	~로, ~로서	ยินดี	(ᄃᆞᆫ-)	기쁘다

[EBS 초급 태국어]

③ 실례와 사과의 인사

ขอโทษครับ

(크-토-스 크랍): 미안합니다, 실례합니다.

ไม่เป็นไรค่ะ

(마이 뽀 라이 카): 괜찮아요.

ขอโทษค่ะ

(크-토-스 카): 미안합니다, 실례합니다.

ไม่เป็นไรครับ

(마이 뽀 라이 크랍): 괜찮아요.

ขอโทษ	(크-토-스)	미안합니다, 실례합니다	เป็น	(뽀)	~이다
ไม่	(마이)	~이 아닌	ไร	(라이)	อะไร(아라이: 무엇, 무슨)의 준말

[EBS 초급 태국어]

④ 이전에 아는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인사

สบายดีไหมครับ

(쌔바-이 디- 마이 크랍): 잘 지내시나요?

สบายดีค่ะ

(쌔바-이 디- 카): 잘 지내요.

สบายดีไหมคะ

(쌔바-이 디- 마이 카): 잘 지내시나요?

สบายดีครับ

(쌔바-이 디- 크랍): 잘 지내요.

สบาย	(쌔바-이)	편안하다, 평안하다
ดี	(디-)	좋다
ไหม	(마이)	[의문조사] ~인가요, ~입니까?

[EBS 초급 태국어]

2) 존대를 나타내는 태국어의 어조사

- ศรัท (크랍: 남성) 과 ศั/ศั (카/카: 여성) 는 우리 나라 말의 ‘~입니다. ~이에요.’ 혹은 ‘~입
까, ~이에요?’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. 태국어에서는 문장 맨 뒤에 붙는 이러한 단어들을 어조사
라고 부릅니다.

* 어조사란?

어조사란 말하는 사람의 어감을 나타내기 위해 붙이는 말이다. 즉, ศรัท (크랍) 과 ศั/ศั(카/카)
는 존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조사입니다. 태국어는 모음의 장단음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고 성조
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다소 제약이 있어 어조사가 발달했다. 그러므로 태국인에게 공손
하게 말할 때는 ศรัท (크랍: 남성) 과 ศั/ศั (카/카: 여성)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<복습하기>

다음의 한국어를 보고 적절한 태국어 문장을 이야기해 봅시다.

① 첫 만남

② 감사의 인사와 대답

③ 실례와 사과의 인사와 대답

④ 이전에 아는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인사와 대답

< 태국의 인사법 ไหว้(와이) >



태국의 인사법은 ไหว้(와이) 라고 한다. 양손을 가슴 앞쪽으로 모아 인사하는 방법이다. 이 인사법은 손의 위치와 상체를 숙이는 정도에 따라 공손함의 정도가 달라진다.

① 동년배에게 인사할 때

- 엄지의 끝이 턱 끝에, 검지의 끝이 코 끝에 닿도록 고개와 상체를 약간 숙여서 인사한다.

② 웃어른에게 인사할 때

- 엄지의 끝이 코 끝에, 검지의 끝이 미간에 닿도록 고개와 상체를 숙입니다. 이때 동년배에게 인사할 때보다 더 깊게 숙여 인사한다.

③ 승려나 더 높은 존경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인사할 때

- 엄지의 끝이 미간에, 검지의 끝이 이마 맨 윗 부분에 닿도록 고개와 상체를 숙입니다.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웃어른에게 인사할 때보다 더 깊게 숙여 인사한다.



* 태국의 패스트푸드점 마스코트

(출처: <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파일:Ronwai01.JPG>)

태국의 유명 패스트푸드 점의 마스코트 역시 이 '와이'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. 일반적으로 이 마스코트는 손을 흔드는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, 태국에서만은 독특하게도 이렇게 '와이'로 인사하고 있다.